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관리 '만전'

승인 : 2025-05-15 08:47:05

저수지 43개, 양수장 27개 집중 운영
영광간선 11km, 법성간선 12km 통수 실시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직원과 수리시설감시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 길용양수장 시설점검과 영광간선 11km, 법성간선 12km 통수를 실시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농사철 안정적인 용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광지사는 지난 12일 지사 직원과 수리시설감시원이 참여한 가운데 길용양수장 시설점검과 영광간선 11km, 법성간선 12km 통수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영농급수 준비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광지사는 저수지 43개 및 양수장 27개를 집중 운영 관리하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평균 저수율은 90%로 평년대비 112%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어 금년도 영농급수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배수로 보수, 토사 준설 및 수초 제거 작업 등을 추진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정경훈 지사장은 "올해 안전·풍년 영농을 위해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안정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sdj0523@asiatoday.co.kr